

<제6강>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땃싸리(대ㅂ싸리)	땃쌀(메ㅂ쌀)	땃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팍(안ㅎ밖)
암개(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 해 설 >

1. 중세국어에서 어두자음군을 가졌던 단어들과 결합된 형태가 화석화된 것이다.
대+싸리, 메+쌀, 벼+씨 ...
현대국어의 공시적 입장에서는 ‘ㅂ’첨가라고 해야 한다.
2. ‘ㅎ’종성 체언과 합성어가 형성된 것이 화석화되어 전해지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암-, 수-’가 접두사화했다. 기원적으로 접두사는 합성어의 선행성분이 원래의 단어와 유연성을 잃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3. 표준어규정 제7항 참조.

제 5 절 준 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력아
어제그저께	엣그저께
어제저녁	엣저녁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덜고, 덜지

< 해 설 >

1. ‘가지다, 디디다’는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준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가지+어 → 가져, *갖어 디디+어 → 디더, *덜어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무얼/뭘
무엇이	뭇이/무에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개,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다
내어	내	내었다	노다
베어	베	베었다	뵸다
세어	세	세었다	쌌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어	해	하였다	혔다
더하어	더해	더하였다	더혔다
흔하어	흔해	흔하였다	흔혔다

제35항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ㅗ/ㅛ, ㅜ/ㅠ’로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꼰다
보아	봐	보았다	봰다
쏘아	쑈	쏘았다	쑰다
두어	뒰	두었다	뒸다

쭈어 쭈 쭈었다 쭈었다
주어 줌 주었다 줌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되'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뵈	뵈었다	뵈다
쇠어	쇄	쇠었다	췌다
씌어	췌	씌었다	췌다

< 해 설 >

1. 그러면 안 돼요. 비교) *그러면 안 되요.

2. 일이 잘 돼 기쁘다. 비교) *일이 잘 되 기쁘다.

- 국어의 용언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에 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에 '되' 단독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1'의 예에서 '요'는 조사이므로 '되-' 뒤에 어미가 연결 되어야 한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ㅊ'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ㅕ, ㅖ, ㅗ, ㅛ, ㅜ'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싸이다	췌다
펴이다	뵈다
보이다	뵈다
누이다	뵈다
뜨이다	뵈다
쓰이다	췌다

제38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싸이어	싸여
보이어	보여
쏘이어	쏘여
누이어	누여
뜨이어	뜨여
쓰이어	쓰여
트이어	트여

< 해 설 >

‘뜨여’는 관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우연한 빈 칸이다.

제39항 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적지 않은	적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 해 설 >

현대의 발음에서 ‘쟈’와 ‘자’는 구분되지 않는다. ‘ㅈ’이 구개음 [tʃ]이기 때문이다. 즉, tʃya → tsyya(ʃ의 재음소화) → tsya(동음 y탈락) → tʃa. 결국 ‘tʃya = tʃa’ 그런데 ‘-지 않-’은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쓰이는 일이 많으므로 구태여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음절을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가하다	가타
다정하다	다정타

정결하다 정결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 해 설 >

1. 무성음 뒤에서는 ‘하’가 통째로 탈락되나 유성음 뒤에서는 ‘하’에서 ‘ㅏ’만 탈락하고 ‘ㅎ’은 살아 남는다. 생각건대(0)/생각컨대(x), 청하건대/청컨대, ‘실천하도록/실천토록
2. 이 외에도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등도 소리대로 적는다.
3. 얽히고설킨 : ‘얽-’이란 말은 있으나 ‘섞-’이란 말은 없다.

제 6 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나붓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뜻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슬슬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해 설 >

1. 부사의 끝소리는 ‘히’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로 적도록 했다.

2. 분명히 ‘이’로 나는 유형

- 1)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 간간이, 겹겹이, 나날이, 다달이, 땀땀이, 뭉뭉이, 살살이, 줄줄이, 째째이, 철철이
- 2) ‘ㅅ’ 받침 뒤 :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뜻이, 버젓이, 번뜻이, 빠뜻이, 지긋이
- 3)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 가벼이, 괴로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외로이, 즐거이
- 4)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 같이, 굳이, 길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적이, 헛되이
- 5) 부사 뒤 :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만난(萬難)
 안녕(安寧)
 분노(忿怒)
 토론(討論)

(속음으로 나는 것)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곤란(困難), 논란(論難)
 의령(宜寧), 회령(會寧)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으)르거나	-(으)르꺼나
-(으)르걸	-(으)르곶
-(으)르게	-(으)르께
-(으)르세	-(으)르쎄
-(으)르세라	-(으)르쎄라
-(으)르수룩	-(으)르쑤룩
-(으)르시	-(으)르씨
-(으)르지	-(으)르찌
-(으)르지니라	-(으)르찌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찌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찌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찌언정
-(으)르진대	-(으)르찐대
-(으)르진저	-(으)르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르까?	-(으)르꼬?	-(스)버니까?	-(으)리까?
-(으)르쑈냐?			

< 해 설 >

모든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되, 의문형어미만은 된소리로 적게 한 규정이다. 이렇게 하면 의문형어미와 다른 어미를 형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군
익살꾼	익살군
일꾼	일군
장난꾼	장난군
지계꾼	지곶군
때깎	때깎

빛깔	빛갈
성깔	성갈
귀때기	긷대기
볼때기	볼대기
판자때기	판잣대기
뒤꿈치	뒷꿈치
팔꿈치	팔굼치
이마빼기	이맛배기
코빼기	콧배기
객쩍닷	객적다
겸연쩍다	겸연적다.

< 해 설 >

1. 된소리 접미사를 인정한 규정이다.
2. 사이시옷은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받쳐 적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지계꾼'이 옳고 '지겻꾼'은 틀린 표기이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뻘치다(다리를 뻘친다. 멀리 뻘친다)		뻘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치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히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얇	얇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 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으)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 해 설 >

1. 늘이다 : 늘리다

- 늘이다 :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탄력성이 있는 물건에 한정하여 사용됨)
- 늘리다 : 크게 하거나 많이 하다.(탄력성이 있는 물체의 길이를 제외한 '물체의 길이'와 '물체의 넓이, 부피, 무게' 따위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추상적인 것이 대상이 되기도 하여 '늘이다'보다는 더 폭넓게 쓰임)

- (1) ㄱ. 고무줄을 늘이다. ㄴ. 엇가락을 늘이다.
 (2) ㄱ. 소매 길이를 늘리다. ㄴ. 집 면적을 늘려 이사하다.
 ㄷ. 몸무게를 늘리다.
 (3) ㄱ. 학생 수를 늘리다. ㄴ. 수입을 늘리다.
 ㄷ. 세력을 늘리다. ㄹ. 실력을 늘리다.

ㄹ. 살림을 늘리다. ㅂ. 근무 시간을 늘리다.

2. 맞추다 : 맞히다

- 맞추다 : ㄱ.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ㄴ.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ㄷ.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 맞히다 : 옳은 답을 대다

- (1) ㄱ. 계산을 맞추어 보다 / 발을 맞추어 걷다 / 음식의 간을 맞추다
 ㄴ. 입을 맞추다 / 기계를 뜯었다 맞추다 / 양복을 맞추다 / 짝을 맞추다
- (2) ㄱ. 프로야구 우승팀을 맞히다 / 정답을 맞히다 / 화살로 과녁을 맞히다 //
- ㄴ. 비를 맞히다 / 도둑을 맞히다 / 예방 주사를 맞히다
 ㄷ. 답을 알아맞혀 보세요

3. -다가 : 한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감을 나타내는 어미.

4. 하노라고 : 나름대로 한다고.
 하느라고 : 하는 일로 인하여.

5. -(으)리만큼 : ~할 정도만큼.
 -(으)ㄹ 이만큼 : ~할 사람만큼.

6. 기타

1) 씹이다 : 씹히다
‘속을 씹이다’만 ‘씹이다’, 그 밖에는 ‘씹히다’
(가) 왜 이렇게 속을 씹이니?
(나) 쌀을 씹히다 / 재주를 씹히다

2) 맞는 : 알맞은
• ‘맞다’는 동사,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
(가) 맞는(○), 맞은(×) <동사>
(나) 알맞는(×), 알맞은(○) <형용사>

3) 어떡해 : 어떻게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어떻다’는 ‘어떠하다’가 역사적으로 줄어든 말.
ㄱ. 지금 나 어떡해. / *이 일을 어떡해 처리하지?
 ㄴ. 너 어떻게 된 거냐. /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4) 체 : 채 : 째
• ‘체’는 ‘체하다’로만 쓰임.
•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는 ‘채’, 명사 뒤에서는 접미사 ‘-째’

- ㄱ. 그는 날 보고도 못 본 체했다. /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되게 아는 체하네.
- ㄴ. 불을 켜 채(로) 잠을 잤다. / 그 외국인은 신을 신은 채(로) 방으로 들어왔다.
- ㄷ. 통째, 껍질째

5) 아니요 : 아니오

- ‘아니오’는 서술어, ‘아니요’는 감탄사
- ㄱ. “숙제 다 했니?” “아니요, 조금 남았어요.” [참] 예 ↔ 아니요(아뇨).
(가) “아니, 조금 남았어.” [참] 응 ↔ 아니
- 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오.

6) -이에요 : -이어요, -예요 : -여요

선행어 조건		어미	사용 예
받침이 있는 말	뫼, 책	-이어요/-이에요	뫼이어요/뫼이에요 책이어요/책이에요
받침이 없는 말	뫼, 저	-여요/-예요	뫼여요/뫼예요 저여요/저예요
아니다	아니-	-어요/-예요	아니어요(아녀요) 아니예요(아녜요)

7) 삼가다, 자문하다

- 흡연을 {삼가, 삼가해} 주십시오. ※ ‘삼가하다’는 단어는 없음.
- 자문(諮問) :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이 일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물음
- ㄱ. 정부는 학계의 자문을 통해 환경 보호 구역을 정하였다.
- ㄴ. 자문에 응했다.

8) 웬지 : 웬지

-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 ‘웬’은 관형사.
- ㄱ. 웬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 ㄴ.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9) 개다, 설레다

- ㄱ. 날씨가 개다
- ㄴ. 설레는 마음

10) 결제 : 결재, ‘개발’과 ‘계발’의 구분

- 결제(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
- ㄱ. 어음으로 결제하다
- 결재(決裁):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
- ㄱ. 결재를 받다 / 결재가 나다 / 결재 서류를 올리다

11) 개발(開發) : 계발(啓發)

- 개발 : 개척하여 발전시킴.
 - ㄱ. 경제 개발 / 광산을 개발하다 / 신제품을 개발하다
 - ㄴ.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 줌.
- 계발 :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 줌.
 - ㄱ. 지능 계발 / 소질을 계발하다